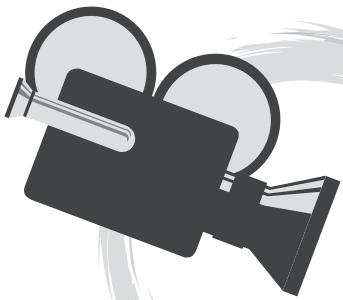

LPG업계 주요 이슈

한국LP가스공업협회

최근 업계관련 주요 일간지 및 전문지에 보도된 내용중 주요내용을 골라 게재한다.

인수위 "LPG 경차 시판 허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산업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경차의 시판을 허용하고, 하이브리드카(전기 모터와 내연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LPG 사용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연탄 값 인상분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인수위와 산자부는 민생 챙기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당부에 따라 저소득층의 연탄 지원과 에너지 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는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LPG 사용 경차와 하이브리드카를 개발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LPG 경차가 공급되면 현재 6.5%인 경차 판매 비중이 2015년 16%까지 늘어 연간 192만 배럴의 휘발유 절감이 기대된다"며 "LPG 하이브리드카까지 포함하면 연간 243만 배럴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1-11 동아일보]

지난해 LPG車 13만9,665대 증가

경유는 21만7,843대로 37.5% 점유

LPG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지난 1년동안 218만7,066대로 13만9,665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안 신규등록 순 증가차량 53만2,943대 중 26.2%포인트를 차지하는 수치다.

건설교통부에서 집계한 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까지 등록된 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1,642만8,177대의 자동차중 휘발유차는 603만3,675대, 경유 608만7,255대, LPG 218만7,066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료별로는 휘발유차가 지난 1년동안 188만2,177대가 감소했으며 경유차는 21만7,843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NG버스 등 CNG차량은 3,353대가 증가한 1만5,333대를 기록했으며 기타 차량은 17만2,082대로 10.4%를 차지했다.

전체 등록차량 구성비율을 보면 휘발유차는 36.7%, 경유차 37.05%, LPG 13.31%, CNG 0.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료별 자동차 신규등록 증가는 2006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 했는데 고유가 등으로 인한 연료비 부담이 이런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유와 LPG자동차도 증가율이 둔화되기는 했으나 지난해 7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이 마무리되는 한편 LPG엔진개조사업 등에 힘입어 기대 이상으로 신규등록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차에 대한 LPG연료사용 규제 폐지가 본격화되는 한편 1톤 LPG트럭 시판, 상반기중 다마스 · 라보 등 LPG 경상용차 판매 재개 등 LPG차량의 선택 폭이 종전보다 다양화되고 있어 LPG차의 신규등록을 견인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가스산업신문 1-7]

페루, LPG車 구입시 2000달러 지원

노후 경유차 감소로 대기오염 개선기대

페루 정부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등 저공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운전자에게 2000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LPG산업환경협회(회장 정진성) 뉴스레터 12호에 따르면 페루 정부는 갈수록 악화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심지역 오염의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페루 에너지광물부 장관 Juan Valdivia는 "이번 정책은 택시를 포함한 개인소유 차량 중 최소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 폐차 후 휘발유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LPG 등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페루 재정경제부는 국회로부터 해당사업의 2008년 예산을 승인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승인이 되면 매년 1만5000~2만대의 경유차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현재 페루에는 20만대의 경유자동차가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가스신문 1-4]

LP가스공업協 새해 기부 활동 활발하게

경차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 용기 관련 규제 완화 등 추진키로

LP가스공업협회(회장 유수륜)는 새해 충전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LPG경차 보급 확대에 전력투구한다는 내용 등의 주요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협회는 충전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 또는 매출액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매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기업의 몫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사회 봉사활동과 기부 등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사업자 개별적으로 활동을 펼쳤지만 올해부터는 충전업계가 뜻을 한데 모아 기부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LPG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경차 보급협의회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경차 보급에 나설수 있는 도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LPG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자동차업계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20년이상된 용기의 폐기와 20년 미만 용기의 재검사기간 연장, 밸브 사용연한 설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용기 구매시 재정적 지원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로판 DME 보급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협회는 2009년에 프로판+DME혼합연료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관련 업계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충전업계의 뜻을 반영하고 협회가 중심이 돼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CNG · LNG · 수소 등 타연료 충전소 병행 등 기존 사업과 LPG관련 분야에 집중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협회 방침이다.

[석유가스신문 1-4]

난방용 연료 특소세 1월부터 인하

프로판 12원/kg, LNG 18원/kg , 등유 27원/ℓ 내려

저소득층의 난방용 연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2월28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1일 대통령 재가를 받고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소비세법은 개별소비세법으로 바뀌고 등유 특소세는 ℓ 당 90원에서 63원으로, 프로판은 kg당 40원에서 12원 인하돼 28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한 취사난방용 LNG는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부생연료유는 ℓ 당 66원에서 47원으로 특소세가 각각 인하된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인하하는 만큼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가스산업신문 12-27]